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서울숲 컨서번시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서울숲 육묘장 이야기
“메이드 인 서울숲”이 탄생하는 곳

서울숲 자원봉사 이야기

6탄: 가을이 오면 열매를 줍줍

서울숲 단신

#설렘 #커플 #데이트 #서울숲설렘사진전

비대면 봉사활동 공유 워크숍 개최

서울숲 챌린지가든 가을 조성 진행

서울숲 다시보기

비대면 셀프 가드닝 프로그램
위로의 초록 선물: 셀프 가드닝

“메이트인서울숲”이 탄생하는 곳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숲공원 내에 육묘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숲공원을 가꾸어 줄 식물을 재배하는 공간으로 2017년 조성된 육묘장은 1,500평가량의 대지에 비닐하우스 5동과 육묘를 위한 농지가 조성되어 있다. 공원을 위해 농사짓는 서울숲 육묘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예진, 김민준 담당 매니저들에게 들어보았다.

※ 육묘란 작물재배나 나무를 번식시키는 데 이용되는 뿌리가 있는 어린 식물을 기르는 것을 가리키는 농업용어로 일반적으로는 먹거리 농산물 재배의 의미로 사용된다.

| 생각보다 넓고 정리가 잘 되어있고 줄 맞춰 가지런히 펼쳐진 식물들이 아름답다. 육묘장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들을 만나 육묘장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다. 각자 하고 계신 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예진 1구역에서 녹지대 관리를 맡고 있고, 육묘장도 담당하고 있는 이예진이다. 육묘장에서는 육묘장 전체 관리와 식물 생산을 맡고 있다. 육묘장 업무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식물의 리스트, 언제 어떤 식물을 얼마나 생산할 건지 관리한다. 여러 명의 녹지 담당자들이 각각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식물들을 요청하면 품종과 수량을 조정하고 공급하는 중간 역할을 한다. 꽃이 언제 생산되고 언제 나갈지 일정들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작업 일정을 조율하고, 물건들도 구매한다. 육묘장은 녹지대이긴 하지만 시설관리와 일정 관리 업무들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봄꽃을 생산한다면 지금부터 파종을 해야지만 초봄에는 심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키울 수 있다. 그런 생산 일정을 짜고 진행하는 일을 한다.

김민준 서울숲의 나비정원과 나비 먹이 재배장을 담당하고 있고, 주로 나비 생산 계획이랑 나비 생산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식물관리를 하고 있는 김민준이다. 나비 먹이 재배장은 육묘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다. 나비 먹이식물은 관상용이 아닌

애벌레가 잎을 먹는 식물, 나비가 꿀을 빠는 흡밀식물을 주로 기른다. 나비마다 먹이식물이 조금씩 다르고 약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육묘장에서 함께 관리하지 않고 육묘장 내 나비 먹이 재배장을 별도로 운영한다. 나비 사육에 필요한 식물만 담당하고 있다.

| 서울숲 육묘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김민준 노지(묘표장 등) 외에 하우스가 총 다섯 동이 있는데 하나는 나비 먹이 재배장이고 나머지 네 동은 육묘장으로 사용한다.

이예진 이렇게 커다란 육묘장이 있는 공원은 거의 없고, 있더라도 공원 밖에 따로 둔다. 우리는 공원 안에 있는 거니까 관리하는 차원이 좀 다를 것 같다. 관리자가 수시로 보고 관리할 수 있고, 꽃 같은 것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 와서 가지고 가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묘장 하우스 네 동은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예진 매니저

한 동은 삼목(*식물의 영양기관인 가지나 잎을 잘라내 다시 심어서 식물을 얻어내는 재배 방식)을 주로 하는 습하고 약간 어둡게 유지하는 공간이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초화(*꽃이 피는 풀, 또는 그 풀에 핀 꽃)용이다.

서울숲 육묘장에서, 서울숲 직원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키워서 공원을 관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육묘장 존재의 의미이기도 할 것 같다.

이예진 서울숲 육묘에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씨앗이나 모종을 구입해서 식물을 생산하는 것과, 서울숲 식물의 씨앗 등을 받아서 ‘메이드 인 서울숲’을 만드는 거다. ‘메이드 인 서울숲’으로 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아직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필요량이 적어 구입하기 애매하거나,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특이한 품종들은 한번 시도해본다. 또 한 가지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산수국은 삼목이 잘 되는 편이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되고 보식하는 용도라면 한 100개만 삼목을 해둬도 우리가 충분히 갖다 쓸 양이 된다. 또 코스모스 같은 거는 씨앗이 되게 많이 뻗는다. 그것도 굳이 살 필요 없고, 파종했을 때 꽃도 잘 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편이다.

서울숲 전체에 심는 식물 중 육묘장에서 길러서 심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예진 때에 따라 편차가 꽤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해에 서울숲에 심는 식물 중 절반 이상은 육묘장에서 생산한 식물이다. 그것도 신규 정원을 조성할 때에 외주를 주거나 새로 식물을 사는 거지, 서울숲 일상 관리를 위한 식물 대부분을 육묘장에서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육묘장에서 길러서 공원에 심는 식물은 어떤 게 있나?

이예진 얼마 전에 산수국을 육묘장에서 갖다 많이 심었다. 산수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0본 정도 삼목해 길러서 올해 240본을 심었고, 나머지도 올해 심을 예정이다. 또 작년 가을에 씨를 받아 키운 맥문동도 올해 자수화단 보식(*심은 식물이 죽거나 상한 자리에 보충하여 심음)에 일부 사용했다. 예산 절약의 측면에서도 육묘장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삼목한 산수국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있다

나비 먹이식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산하는지?

김민준 나비 먹이식물 중에서 흡밀식물 중에 붓들래야나, 최근에는 금관화도 파종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고 있다. 나비 먹이



▲ 육묘장에서 서울숲에 사용할 식물들을 재배 중이다

재배장은 기본적으로 나비 사육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나비도 생산하고 있다. **(나비생산?)** 나비먹이 재배장 내에 제 2의 인공사육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번데기가 우화(*곤충이 탈피를 거쳐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과정)하기 시작한 단계다. 처음에 번데기 10마리로 시작했는데 한 3~4주쯤 되니까 나비가 산란해서 이제 새로운 나비 2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겨울 오기 전까지 해보려고 한다.

나비는 나비정원에서만 기르는 거로 알았는데, 이곳에서 해보는 이유가 있나?

김민준 이게 한 1달 반 전부터 구상하고 1달 정도 실행해보고 있다. 나비 먹이 재배장에 농약을 안 치다 보니 외부에서 나비들이 들어와서 알을 낳더라.여기가 환경이 꽤 좋나보다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해보게 됐다. 그전에는 번식도 하지만 보통 번데기 상태의 나비를 사 오거나 했다.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사 오거나 여기서 번식시켜 기르거나 했는데, 특히 올해는 나비정원 시설을 정비하고 하면서 그래도 꽤 생산하게 된 거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육묘장의 다음 스케줄이 궁금하다.

이예진 지금 한참 가을꽃도 심고 있다. 코스모스랑 같은 시기인데 지금 심으면 서리 내리기 전까지 될 거다. 과꽃이나 코레우스, 멜람포디움 등을 서울숲 공원 곳곳에 심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사용할 식물들도 전부 육묘장에서 생산한 게 나간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식물들이 진짜 많이 나갔을 텐데 프로그램들이 많이 취소되어 아쉽다.

김민준 나비 먹이 재배장은 식물 재배, 나비 키우기, 부수적으로 천연살충제 만드는 것 정도를 하고 있다.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지금 서울숲에 없는 나비 종을 도입하기 위해서 후박나무를 삼목해 증식하려고 하고 있고, 증식이 성공하면 외부에서 채집해서 나비 인공 사육을 시도할 계획이다.



▲ 김민준 매니저

(어떤 나비?)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종인데 청띠제비나비라는 종이다. 후박나무는 청띠제비나비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이다.

이예진 그리고 여기는 온실이긴 한데,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아서 슬슬 월동준비를 하고 있다. 밖에 있는 묘목들은 이제 다 싸고 덮고, 미니 하우스를 다 지을 예정이고, 그리고 온실 안에도 별도의 난방 장치가 없기 때문에 2중 하우스로 만들어서 덮을 예정이다. 나비 먹이 재배장은 애초에 하우스가 2중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진 아니어서 좋다. 지금 미니 하우스를 만들려고 틀은 다 만들어놨고 덮으면 된다.

김민준 나비 먹이 재배장은 흡밀식물들의 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지금 분갈이 작업을 하고 있고, 월동을 위해서 나비 먹이 재배장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아마 그렇게 지날 것 같다. 올해를 넘겨 길게 보고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후박나무 증식을 성공시켜서 나비 신규 종을 도입하는 게 있다. 그리고 나비 먹이 재배장 주변 야외 공간에 다양한 나비 먹이 식물들을 놔두고 나비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나비를 유인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다. 밖에 환경을 만들어줘서 나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그게 언뜻 자연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나비정원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김민준 나비정원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사육을 위한 종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같은 호랑나비라도 같은 공간에 갇혀서 번식된 개체들은 유전적으로 열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유전적인 다양성을 주기 위해 야외 개체들을 유입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라 실험을 해봐야 한다.

그런 계획과 실험들이 다 성공하게 되면 육묘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단기적인 계획을 넘어서 육묘장의 5년, 10년 후의 비전을 혹시 그리고 있는 게 있나?

김민준 나비 먹이 재배장의 경우 시스템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시설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비들이 살고 먹고, 번식하고, 생활하는 식물을 재배하다 보니 살충제가 없이 식물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갈증이 있다. 해충이 못 들어오고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식물공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예진 개인적인 바람인데 여기가 식물원처럼 오픈된 공간이면 좋겠다.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투어도 할 수 있는 육묘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민들이 식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애정이 생기는 게 공원에도 좋은 일이 될 거다. 육묘장이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는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려면 시설이 우선 정비가 되어야 할 거고 시스템도 갖춰져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막연한 먼 훗날의 이야기다.

끝으로 시민들께 바람이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예진 녹지담당자로서 방문객들께 가장 큰 바람은 식물을 안 가져가시는 거다. 어제 심으면 오늘 없어져있고, 꺾이고, 밟혀있고, 그럴 때 정말 속상하다. 인식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 공원의 식물은 함께 누리는 공공재고, 공원에서 뭘 가져가는 건 다른 시민들로부터 빼앗아 가는 거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이 예쁜 꽃과 나무를 보고 즐길 권리를 훔치는 거라는 생각으로 식물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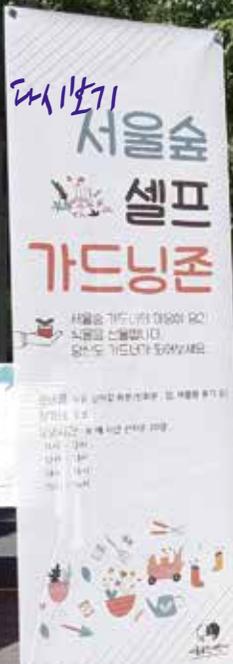
김민준 식물을 훼손하거나 채취하거나 하는 게 다른 많은 서울숲 방문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하기 어려웠다. 식물을 훔쳐 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겪는 일이지만 그걸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극소수를 제외한 많은 다른 시민들께 불편한 마음을 안겨드릴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예진 그냥 거친 손길로 마구 심었던 모래알 같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분갈이를 해주면 그게 또 무럭무럭 자라서 잎이 커지고, 그래서 서울숲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많은 분들께 보여지는 과정을 보다 보면 일부러 마음먹지 않아도 애정이 저절로 생긴다. 서울숲에 심어진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김민준 서울숲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서로 잘 지켜주면 아름답게 운영되고, 발전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숲은 시민과 함께 만든 공간이고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우리 의식이 성장하는 만큼 서울숲도 모양을 바꾸며 발전하고 더 많이 개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이 그렇듯이 동종 교배의 끝은 단종이다.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만나 교류하고 그렇게 더 발전하는 서울숲이 되면 좋겠다.

서울숲공원의 꽃, 나비, 많은 동식물은 자연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닌 도시민들을 위해 이곳에 불러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안에서 만들고, 가꾸고, 지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손길로부터 나온다. 두 분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도 지지치 말고 심고 기르고 번식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숲 대시보기



위로의 초록 선물 셀프 가드닝

코로나 19로 답답한 요즘은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모임도, 가벼운 외출마저 조심스러운 시기이지요. 서울숲에서 한 달에 두 번 진행하고 있는 셀프 가드닝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계신 많은 분께 조금의 위로와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숲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숲의 가드너들이 씨앗부터 정성스럽게 키운 식물들을, 셀프 가드닝 참여자들이 각자 집에서 안 쓰는 화분이나 재활용 용기를 가져와 심어가는 것이 셀프 가드닝의 기본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바람은 서울숲이 준비한 식물 선물 속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전달되었으면 한 것과 또, 직접 식물을 심어보고 가뉘가 기르는 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우울해진 심신에 위로와 위안을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서로 웃으며 즐겁게 식물을 심어가는 모습, 노년의 부부가 함께 방문해 조심스럽게 식물을 고르던 모습, 긴 대기 시간에도 불평 없이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보람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숲 셀프 가드닝이 많은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저희도 함께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었지요.

모두가 작은 식물 선물 하나로 잠시나마 웃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숲이 전하는 식물의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참여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서울숲을 산책하기 위해 방문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안내방송에서 화분심기체험을 들고 자녀들에게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서 마침 갖고 있던 일회용 커피컵에 심었어요. 서울숲 셀프 가드닝존을 방문하여 아이들이 식물을 심고 이들도 만들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 김00 님

서울숲의 정취를 느끼며 백요국을 심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토요일 오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힐링이란 진정 이런 것이라 생각되네요.
서울숲의 좋은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장00 님 (시아머니 동반)

서울숲 페이스북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가을햇살이 머무는 호숫가에 앉아 국화를 심으니 제대로 가을을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보송보송한 흰털을 가진 백요국 잘 키울게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키우겠습니다.
참여자 김00, 양00 님 (신혼부부)



[서울숲 자원봉사 이야기 6탄]

가을이 오면 열매를 줍줍

가을이 오면, 공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열매들이 툭툭 떨어 집니다. 녹지대와 산책로에 떨어진 열매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떨어진 열매는 쓸거나 갈퀴로 모아 정리할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소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열매를 주워야 합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사람 손길이 필요한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기에 남녀노소, 가족 단위, 개별 봉사활동으로 '열매 줍기'를 진행합니다.



▲ 열매 줍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이 떨어진 열매를 줍고 있다.

공원 봉사활동으로 열매 줍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나무와 열매는 '칠엽수, 메타세콰이어, 참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5종입니다. 칠엽수는 서울숲 방문자센터(관리사무소) 건물 앞에 자리 잡고 있으며 칠엽수 열매는 마치 밤 같이 생겼습니다.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크기도 다양하여 서울숲 학교 숲공방 자연물 재료로 재활용하여 사용됩니다. 또 하나 자연물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메타세콰이어 열매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열매는 3번 출입구를 따라 건다보면 쪽 펼쳐져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줍줍 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는 조각공원 옆, 거울연못 뒷길에서 만날 수 있으며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다양한 크기의 도토리 열매를 쉽게 주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운 도토리 열매는 육묘장에서 발아하여 묘목으로 키워 다시 서울숲의 나무로 식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원 곳곳을 산책하다 보면 소나무 아래에서 다양한 크기의 솔방울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솔방울도 멋진 가을 자연물 고구입니다.



▲ 열매 줍기로 수확한 도토리를 심어 묘목을 기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는, 단풍의 대표 명소인 은행나무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노란 은행나무길이 펼쳐지는 공간이라 가을이 되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열매가 떨어지고 밟히게 되면 지독한 악취를 발생시켜 주기적으로 열매줍기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자원봉사로 연계하여 열매줍기가 진행 될 시에는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손이 아닌 집게 도구를 활용해 열매를 주워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열매는 '순환하는 서울숲'의 일환으로 공원 내 천연농약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 "순환하는 서울숲 2탄-공원도 유기능 합니다."

<https://seoulforest.or.kr/16629>

예전과는 달라진 일상 속에서 공원 봉사활동을 기촌처럼 자유롭게 진행할 수는 없지만, 올 가을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숲에서 열매도 줍고, 순환하는 서울숲에도 자원봉사자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서울숲 봉사활동은 홈페이지(<https://seoulforest.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원에티켓

서울숲공원 내 모든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과태료 부과)

♥ #설렘 #커플 #데이트 #서울숲설렘사진전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숲 속에서 설레었던 순간들을 나누는 서울숲 설렘 사진전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작으로 접수된 총 105매의 디지털 사진 중 심사를 통해 20 작품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작품은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숲 설렘정원에서 진행되는 "서울숲 설렘 사진전"에 전시됩니다. 서울숲 설렘 사진전에 출품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전시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 작품명 '서울숲의연인'-서울숲의 아름다운 풍경과 연인의 모습을 담았다.

비대면 봉사활동 공유 워크숍 개최



▲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숲 비대면 자원봉사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진행하는 '공원의 친구들' 비대면 봉사 활동 공유 워크숍에 참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서울숲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쓰담쓰담' '잡초쏙쏙' 사례를 공유했다.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공원의 친구들 선정기관 담당자 13명 외 협력 기관에서 참여하였으며, 각 공원별 비대면 봉사활동 고민과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원 봉사활동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숲은 많은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고 교류할 계획이다.

서울숲 챌린지가든 가을 조성 진행

지난 9월 20일 챌린지가든 2차 워크숍이 서울숲공원 세미나실, 겨울정원, 챌린지가든에서 진행되었다. 10명의 챌린지가드너와 2명의 정원 전문가가 함께 한 이번 워크숍은 챌린지가든 가을 조성에 대한 계획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과 정원 전문가가 조성한 겨울정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챌린지가든 가을조성은 9월 27일 일요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10월에는 챌린지가드너가 진행하는 챌린지가든 투어, 가든파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챌린지가드너와 전문가 자문단이 겨울정원 투어를 하고 있다.



서울숲 소식지 구독자 설문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소식지를 읽은 소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숲 소식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반려견과 행복한 산책



- ! 꼭 대변봉투를 지참해주세요!
- ! 소변에는 물을 흘려 뒷처리를 해주세요!



공원에서는 2m 이내 산책줄을 사용해주세요
위반시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



산책 시 배변 봉투를 반드시 챙깁니다
미수거시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2차 7만원/3차 10만원



동물등록과 인식표는 필수입니다
미부착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2차 10만원/3차 20만원



반려견이 물었던 경험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꼭 지켜주시개!



마스크 꼭 착용하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